

보험

산업이슈

2021. 03. 12

하위사들에 국한된 자보료 인상

News

하위사들 자보료 인상 추진: MG손보가 3/16부터 개인용자동차보험료를 2% 인상한다고 한다. 롯데손보, 약사손보, 캐롯손보 등도 최근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의뢰해 이르면 4월경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료를 산정하면서 2018년 요율을 사용해서 부득이하게 5%대 인상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머니투데이에 보도)

Comment

상위사와 하위사의 상황은 달라: 보험료 인상효과가 반영되며 2020년 자보손해율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MG손보의 경우 2020년에도 자보손해율이 107.7%로 100% 상회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롯데손보와 약사손보도 90%를 약간 상회하는 손해율을 기록했다. 80%대 중반 수준인 업계 상위사들의 손해율과는 큰 차이가 있는 수준이다. 과거에도 MG손보 등 하위사들만 자보료를 인상했던 전례도 있어, 상위사들까지 상반기 내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하위사들의 M/S를 합쳐봐야 10%가 채 되지 않는다. 상위사들은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자보손해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실제 1~2월 손해율은 전년동기 대비 4~5%p 내외 개선된 것으로 이미 언론보도된 바 있다.

Action

자보손해율, 상반기까지는 개선. 하반기 이후 불확실성은 높아: 2018년 이후 3년만에 정비요금 인상이 추진(국토부, 금융위, 정비업계, 보험업계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3/25 첫 회의)된다는 뉴스에 자보료 추가 인상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으나, 원가 인상반영과 자보료 인상 간에는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를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물론 기사 내용대로, 작년초까지 이루어진 자보료인상이 충분치 못해 업계 상위사들도 자보료 추가 인상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요율인상에 대한 구체적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일단 상반기까지 손해율은, 아직 2020년초의 요율인상효과가 반영되고 있고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어 전년동기대비 개선이 기대된다. 하지만 하반기 이후 자보손해율 사이클 전환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고, 상위사들의 자보료 인상 시도가 상반기 중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자보 M/S 5%를 넘는 한화손보의 요율인상 시도 여부를 상위사들의 인상 시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제시한다.

Compliance Notice

- 자료 발간일 현재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한 종목들의 IPO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내용은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거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발행주식수 변동 시 목표주가와 괴리율은 수정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1년간 투자의견 비율 (2021-01-06 기준) - 매수(89.6%) 중립(10.4%) 매도(0.0%)

■ 기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Buy: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Hold: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perform: 초과 상승률 -10%p 미만

■ 업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Ov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Neutral: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미만